

이민위천의 리념이 꽃피는 내 조국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이 시각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빛나는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70여년전 공화국의 창건은 이 나라 인민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태양이 없는 화원을 생각할 수 없듯이 공화국에 펼쳐진 인민의 리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일찍이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실현해본적도 없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이 땅에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지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쓰셨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천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제일로 중시하신것이 바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국가와 정권을 세우고 법을 채택하는것이였다. 조선예술영화 《있을수 없는 날에》의 장면들에는 이

런 장면도 있다. 해방된 그해 당창건을 놓고 각 도당책임자들의 협의회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도하시었다. 회의참가자들이 정치로선 문제를 놓고 사회주의로 나가야 하는가 민주주의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농업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농민들의 념원이 땅을 가지는것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념원을 풀이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당의 로선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해주시었다. 이렇게 건당, 건국의 첫기슭에서부터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여도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첫자리에 놓으시였기에 해방후 토지개혁혁명을 발포하시어 농민들의 세기적소원을 풀이주시었고 련이어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어 여성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의 헌법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아 작성하도록 하시었다.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헌법초안을 몇번이고 검토, 가필하시고도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려 70여일동안이나 전인민적토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공화국의 첫 헌법에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가벌적절찬 전화의 나날에는 전방적무상치료를,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던 1970년대에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전적으로 맡아키우게 대한 어린이보육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법과 정책들을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어 공화국을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 주시었다. 참으로 공화국의 모든 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될 수 있는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기도 귀담아들어주시며 그것을 정책에 담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의 위대한 승수이 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언제나가 어느 한 나라 정객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제기한적이 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언젠가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떠선것입니다.)라든가 (이 과수원은 전쟁을 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전쟁이 끝나면 과수원을 만드실라고 교시하시고 또 지도해주셨기때문에 생긴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로 되였다고 하는데 주석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전문기술들을 공부하셨습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랑하게 웃으시며 농민들이나 우리가 과일이 잘 자라도록 가르쳐주고 건설부문 일군들은 여기에 인재를 쌓으면 물이 고여 관개용수로 쓸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고. 그래서 나는 가서 보고 결정했었을뿐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이것이였다. 공화국을 령도하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사업하시는것

을 더없는 기쁨으로, 즐거운 휴식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느 일요일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하루만이라도 쉬실것을 말씀하셨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이나 농촌을 돌아보는것보다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고심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포착할 때처럼 기쁜 일은 없다고, 이것도 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러니 따로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는가고 현현히 교시하시었다. 인민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정치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사랑의

대화문이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졌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인민이 기뻐할 때 제일 기뻐하시고 인민의 행복속에 더없는 보람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 어느때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속영지에서 저녁식사를 하시적이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인민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아직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밤잠도 오지 않고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던 그이께서 문득 말씀을 멈추시

었다. 꼭잡에 드셨것이었다. 순간 그 자리에 숨얼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과 몇분간이었다. 동무들 미안하고, 온종일 다녔더니 너무 곤하여 잠깐 졸았소, 나는 이제 또 몇개의 공장들과 인민군부대들을 보기 위해 떠나야 하오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는것이였다. 이렇게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찾아 끝없이 이어가신 그이의 헌신의 로고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경영업기지를, 과수농장들이 일떠섰을뿐 아니라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인민봉사기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지고 만수대거리의 살림집과 정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어찌 그뿐인가. 개선청년공원유화장, 통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해 볼모든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반목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길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모든 국가활동과 정책들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데로 지향시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신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투하는 진정한 어

머니당으로 건설하도록 결심을 이끌어주시고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는것을 국가의 최종대사업으로 내세우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바로 이런분이기때문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하여 인민이 불행을 당했을 때에는 강력한 전선력량을 파견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마를,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었고 공화국경내에 악성전염병이 류입되었을 때에는 인민의 안병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취해주시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최대비상방역전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최대비상방역전이 벌어진 지난 90여일간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방역대전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이 창조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은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고 빛내주신 인민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공화국을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으로 일떠세우시는 인민의 태양이시다. 철세워위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그 사랑에 고무되어 하나로 더욱 뭉친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락원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밝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 퍼진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은 은근에 자련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란 누구나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부르고부르는 《애국가》! 노래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수록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온 조선. 허나 오늘날 공화국인민이 한없는 자긍심에 넘쳐 소리높이 자랑하는 빛나는 아침의 나라는 결코 아침해를 남먼저 맞이하는 나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지난 세기초엽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삼천리강토는 령강들의 각곡전장으로 화하였고 나중에는 일제의 군화발발에 짓밟혀 온 겨레가 수십년동안 짐승만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오지 않았던 안되었다. 나라였던 그 세월 아침해는 변함없이 떠올랐지만 겨레는 철철안후속에서 비참한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던 이 땅에 진정한 아침이 밝아온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전을 벌리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그날부터였다. 그때부터 나라의 주인이 된 이 땅의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새 조국건설의 가슴벅찬 새 아침을 맞이하였고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쳐부시고 전승의 빛나는 아침을 떠올렸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기상을 과시하며 자랑찬 승리의 아침들을 련이어 안아올리었다. 공화국이 걸은 승리와 영광의 려정을 더듬어볼수록 새 나라 인민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든다. 일찍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시신 이 조국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실 결심 굳히시며 대동강의 장쾌한 해돋이를 맞이하는 자신의 마음속진정을 담아 즉흥시를 읊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

그날의 맹세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얼마나 많고많은 험산준령을 넘고 넘으시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시였던가.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길에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제일먼저 맞으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을 더욱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의 빛나는 아침을 안아오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한생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이 땅에 밝아오는 아침들은 또 그 얼마나 환희롭고 격정넘치는것인가. 경애하는 그이따라 넘고 헤쳐온 지난 10년러정이 가슴부듯이 되새겨진다. 그 나날 세상을 놀래우며 나라의 곳곳에 무수히 일떠선 인민사랑의 보금자리, 친지개별의 창조물들과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흥강국의 실체들은 그 얼마만인가.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싣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얼마나 많은 주체관들이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만리장막으로 날아올랐던가. 올해에만도 영웅조선의 절대적힘을 과시하며 세계대공의 절대병기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우렁찬 피성을 터치였고 평양의 화성지구에 새로운 인민의 리성거리가 일떠서고 있었고 함경남도인민들의 생활에 보편을 주게 될 대규모 현모은실농장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돌발적으로 들이닥친 사상초유의 보건대기를 이겨내고 세계보건사에 전례없는 기적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어 이 땅엔 세인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락원의 찬란한 아침노을이 붉게 피어오르고있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들먹이고있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온 누리에 끝없이 빛내여갈 드넓은 맹세와 각오로 더운 피를 흘리고있다. 철세워인들을 대대로 높이 모시어 조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빛나는 아침의 나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행토의 천재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안아온 탁월한 령도

지난 8월 10일 공화국은 령내에 류입되었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정책을 실시하시어 방역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악성비루스가 발생하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리해안의 예지와 통찰력으로 미구에 인류가 겪게 될 무서운 고통과 불행을 내다보시고 초기부터 물샘들을 차단하고 초기부터 물샘들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방역대책을 과시하며 철저한 조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유지하도록 하시었다. 특히 지난 5월 돌발적인 보

건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여일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방역위기사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전염병방역상황관리를 전과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최중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었다.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병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투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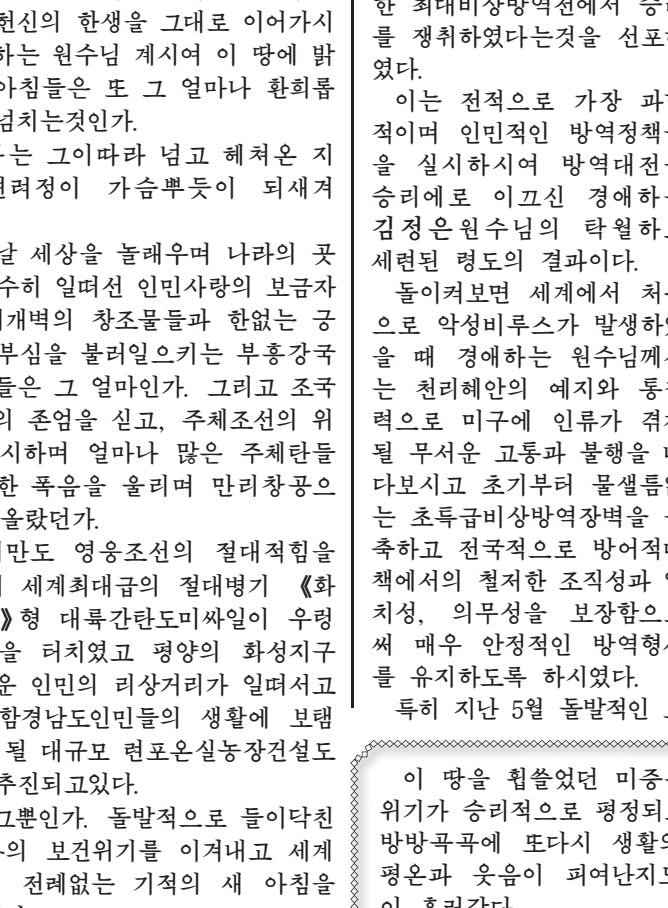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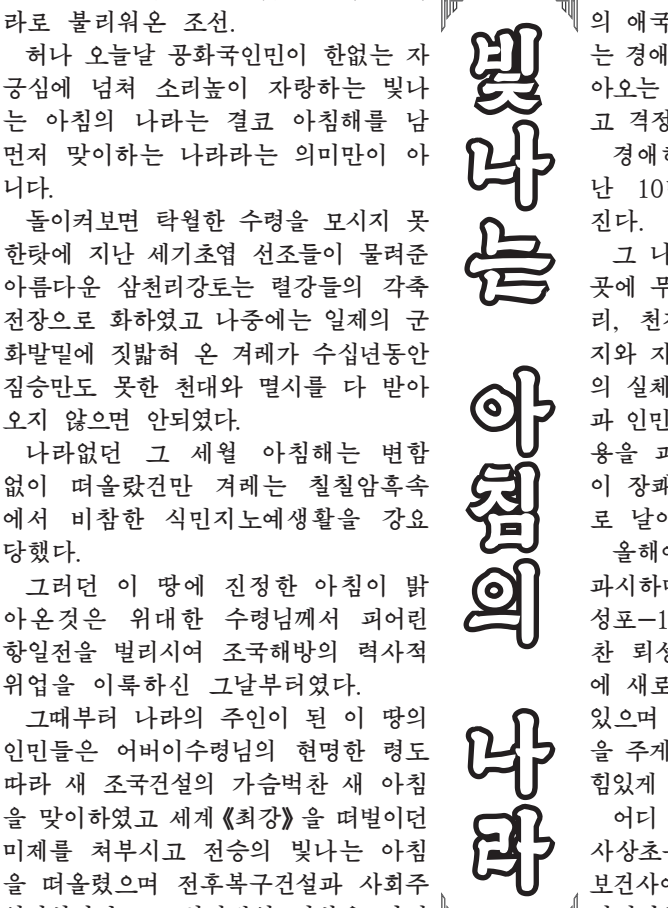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별 차단봉쇄와 단위별격제초치가 강력히 실시되었으며 전 주민집중검진검진을 엄격히 진행하여 유력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켜 치료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방역대전의 하루하루는 준엄했지만 새 나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선 눈물없는 들을수 없는 사랑의 날과 날들이 흐르고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치국 비상협의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의 동종요당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시고 돌발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또한 몸소 국가비상방역사

를부 찾으시어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셨고 평양시외의 약국들도 찾으시어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가정에서 마련한 신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환자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을 악성병마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하도록 하시고 모든 유력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빨리가달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시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령력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데 대한 조선로동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고 그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어려운 메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공화국특유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선의 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로 보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참으로 공화국에서 이번이 거둔 비상방역전에서의 기적적승리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정책들을 실시하고 결실을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이번 비상방역전에서도 승리한 그이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김금화

...
오늘은 대동강 해돋이 맞고
래일은 공산주의 해맞이하자
혁명의 길 이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이 땅을 휩쓸었던 미중유의 보건 위기가 승리적으로 평정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또다시 생활의 따뜻한 평온과 웃음이 피어날지도 수십일이 흘러갔다. 허나 오늘도 나는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의 높은 연단에 오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크나큰 격정과 자신성에 넘치시어 91일간의 최대비상방역전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던 그날의 격정의 순간을 잊을수가 없다. 91일간! 실로 공화국의 장구한 려정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수자이다. 그 짧은 려사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눈물겨운 격난의 대동란을 겪어야 했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어야 하였으며 또 얼마나 위대한 힘의 분출로 환화와 격동의 오늘을 맞이하였던가. 유력자수 0. 치료중 환자수 0. 세계의 유일무이한 비루스결정체의 탄생. 의미해불수록 그 어떤 《수학》 랑도 없음을 나타내거나 《아무것 도 없는 빈 상태》를 비겨 이르는 전설적위인의 아득한 높이, 공기처럼 차호르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의 열도, 최대의 방역위기를 극복하며 보다 강해진 우리 힘의 세기가 반영된 위대한 수자이다. 이 땅에서 악성비루스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0%는 새로운 기적창조의 100%, 200%로 될것이다. 위대한 당의 백승의 령도따라 최 대의 방역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인민은 지금 위기를 발전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고 보다 강해진 힘, 더욱 슬기롭고 용감한 기세를 안고 신심드높이 래일의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 하고있다. 배남일



수학 《0》에 대한 생각

《0》이라는 수자의 의미가 오늘날 이렇게 소중해지면 안겨질줄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나에게는 수자 《0》이 빈 공백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눈물겹도록 뜨겁고 가슴부풀도록 숭고하고 구우의 총만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의 무한대한 헌신과 교생의 크기, 우리 원수님의